

고려사 중·후반 200년 원나라 간섭기 새롭게 조명

20년 걸쳐 '고려사 8권 출간'...대장정 마무리 이승한씨

20여 년 가까이 고려사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이를 역사 대중서 8권으로 풀어낸 이가 있어 화제다.

지금까지 고려사는 대체로 현대사의 군부독재에 대입한 단순한 선악 이분법으로 다뤄져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 '민족'과 '민족주의'를 벗어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고려사를 새롭게 들여다 책이 발간됐다. 저자는 지난 8월말 광주 성덕고에서 정년퇴임을 한 이승한 교사. 이 씨는 최근 고려사 중후반 200여 년을 꼼꼼히 조명한 책을 출간했다. 지난 2001년 '고려 무인 이야기' (전4권)를 펴낸 데 이어 18년 여 만에 '문제적 군주'인 공민왕 시대 등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책은 '쿠빌라이 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 '혼혈왕 충선왕, 그 경계인의 삶과 시대', '몽골제국 쇠퇴와 공민왕 시대', '고려 왕조의 위기, 혹은 세계와 시대' (푸른역사) 등 모두 4권.

"우리 역사 가운데 고려사는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만 해도 조선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많았지만 고려 이야기는 많이 없었거든요."

가을이 오고 있는 교정에는 한산하고 평온한 기운이 넘쳤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고 만난 저자의 얼굴에는 지나 시간에 대한 회한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감회와 빛이 어려 있었다.

"교사와 학자, 저자라는 세 분야를 넘나들며 살아왔다"는 말에서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치열함이 느껴졌다.

"학계에서는 고려사를 다른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대중성을 겸비한 인문학 서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오욕의 역사로만 치부되던 시기, 다시 말해 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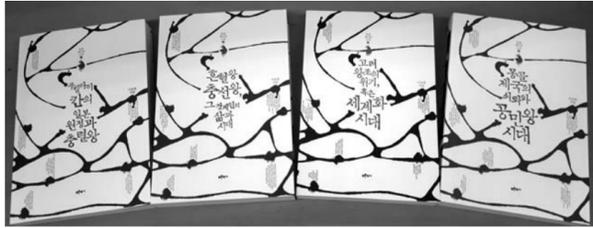
**'민족' '민족주의' 벗어나
균형잡힌 시각서 해석
소외된 고려사 대중성 가미
공민왕 시대 등 세밀 묘사**

라의 간섭기는 오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저자가 고려사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오래 전에 읽은 시모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나서였다. 역사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과 함께 도전의식이 생겼다. 이에 앞서 그는 전남대 사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교사가 대학원에 진학해 전공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89년 전교조 활동으로 광주 대동고에서 해직을 당했다"며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원에서 전공 주제가 '고려 무인 집권기와 원 간섭기'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도 고려를 배경으로 사극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긴 호흡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다시 말해 인문학과 학술을 가미한 책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죠."

고려 말의 '문제적' 군주 공민왕(재위 1351-1374)에 관심이 갔던 것은 새 왕조인 조선의 개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일반적으로 공민왕 시대를 '반원(원나라) 개혁 정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공민왕 사후 20년이 못 돼 고려가 망하게 됐을까 라는 의문이 떠



이승한씨가 2001년 출간한 고려사 대중서 4권에 이어 최근 고려시대 중후반 200년을 조명해 펴낸 책들.



나지 않았다.

저자는 후계 1순위였으면서 세 차례나 밀려났던 공민왕의 즉위 과정, 흥건족 등 농민반란으로 흔들리는 제국, 신돈의 중흥에 나타난 정치적 책략 등을 풀어낸다. 책에는 공민왕의 인간적 고민과 한계도 소상히 그려져 있다.

"공민왕은 통치자로서나 통치공학적 측면에서나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 시대를 헤쳐 나가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중국의 원명 교제기와 맞물린 시점이라 대외적

인 변수도 많았구요. 공민왕은 새롭게 부상한 명나라와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원나라 간섭기에 득세했던 기득권층이 '진명정책'에 맞서 방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명파, 친원파의 싸움 등이 격화되면서 고려는 멸망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의 고려의 대외적 역학관계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21세기 한국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개혁은 기득권층, 권문세족의 반발을 불러 오려 왕권 약화를 가져올 위험도 있었죠. 특히 권세가의 불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준부, 이인임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누구보다 우선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개혁의 주체로 나선 것입니다."

이제 퇴직을 했기에 그는 새로운 주제를 생각하고 있다. 역사적 의미와 흥미를 갖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 해직 후 5년 만에 복직을 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시간이 가뭇없이 흘러가 버렸네요. 앞으로도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보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내일 오후 3시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제18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18' 전 작가와의 대화 행사를 7일 오후 3시 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빛2018' 전 선정작가인 김성수(전북, 조각), 윤세영(광주, 회화), 이은영(부산, 설치), 안동일(대구, 사진), 윤지선(대전, 평면·설치)과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객과 대화하는 자리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2001년부터 시작해 18회를 맞이한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국내외청년작가 중에서 작품활동이 활발하고 창의력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지역별 대표 작가를 선정하는 전시로서 우리나라 청년작가 배출의 장구역할을 해 왔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의 길목서 한옥음악회 열린다



장덕동 근대한옥 전경.

8·22일 장덕동 근대한옥

가을의 길목에서 한옥음악회가 열린다.

다협씨아트컴퍼니는 오는 8월과 22일 광주시 장덕동 근대한옥에서 음악회 '가을을 부르다'를 연다. 오는 11월 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이번 음악회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지역특화 문화거점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한다. 장덕동 근대한옥(1291-1번지)은 등록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돼 고즈넉한 한옥의 멋스러움을 자아낸다.

8일 공연에서는 오후 2시부터 보컬 그룹 더드림싱어즈의 '뮤지컬&오페라 콘서트'를 개최한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과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송', 요한 스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친숙한 노래를 선보인다.

22일 무대는 전통국악으로 꾸미고 10월6일에는 '포크 콘서트', 같은 달 27일에는 '재즈&팝 콘서트' 마지막으로 11월3일에는 '아프리카 타악' 공연이 열린다. 무료 관람. 문의 070-4238-838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화전당 시설 훌륭...아시아 첫 공연 흥분됩니다"

7·8일 문화전당 공연 오페라 '포기와 베스' 예술감독·연출가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포기와 베스' 공연 흥분됩니다."

5일 오페라 '포기와 베스' 연습 현장에서 만난 예술감독 매튜 와일드는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첫 공연을 앞둔 소회를 이같이 말했다. 이 오페라는 오는 7일(오후 7시 30분), 8일(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공연된다.

와일드 감독은 먼저 문화전당 극장 시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연출진과 배우가 필요한 모든 설비가 한 곳에 구비돼 있다"며 "립턴과 바르셀로나 등 해외 유수 극장들과 차별화 됐다"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 오페라단의 '포기와 베스'는 1935년 뉴욕 브로드웨이 알빈 극장에서의 초연 이래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왔다.

50여 명의 배우를 포함한 오페라단 60명은 일주일 전부터 광주에 와서 연습하고 있다. 작품의 배경은 1970년대 남아공 케이프타운으로 원작자 조지 거슈윈의 당부대로 대부분의 배우가 아프리카계이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에 거주하는 남아공 출신 어린이 2명이 출연한다.

감독은 협연하는 한국의 코리아 콰르텟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재즈와 클래식 결합한 무대에 적극적으로

로 도전하는 코리아 콰르텟의 열정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케이프타운에서 나온 자란 와일드 감독은 춤과 노래가 일상이던 아프리카의 문화를 작품에 녹여냈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아프리카의 전통안무 '판술라' 등 다양한 춤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2개월 전 광주를 미리 방문해 공연 현장을 둘러본 연출 크리스틴 크라우즈는 "70년대 남아공에 만연했던 인종 격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와 가난을 다룬 이 작품이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에 어울리는 메시지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첫 공연을 위해 차별화를 둔 요소가 있는지를 묻자 그는 "최고의 요리는 요리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며 오페



매튜 와일드 크리스틴 크라우즈

라 극본과 기본기에 충실히 공연을 준비했다"고 답했다.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8일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별장'

9월 첫 번째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별장' (사진)이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린다.

유별난 예술극장에서는 팬타곤의 남미 팬플룻 연주, 카르페디엠의 아일랜드 탄휘술 공연, 아프리카 타악 그룹 아냐포의 타악 난장이 선사하는 이색 하모니를 만끽할 수 있다.

한평 갤러리에서는 여덟 번째 기획전과 야미전이 22일까지 진행된다. 기획전은 일상관찰을 주제로 서영실, 율리비아 로렐, 정란, 최향근, 박지형, 김선화 등 작가 6명이 회화, 사진, 설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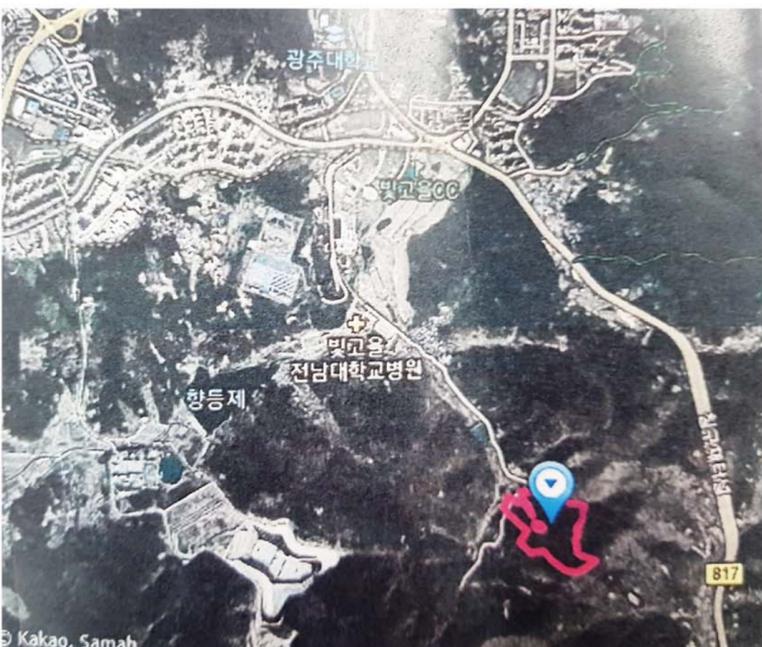


술 작품을 각각 선보인다. 야미전에는 고재근 작가 초대전이 진행된다.

또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하는 특집행사로 광주·전남 5개 대학의 릴레이 전시가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